

2월 지육시세는 2,750원/ kg 예상



권혁만 양돈 BU장
(주)선진 양돈 BU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폭등에 따라 또 다시 연초부터 사료가격이 5% 내외로 오르고 서울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은 1월 18일에는 2,500원대로 하락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양돈 농가들의 마음을 쫓겨 얼어 붙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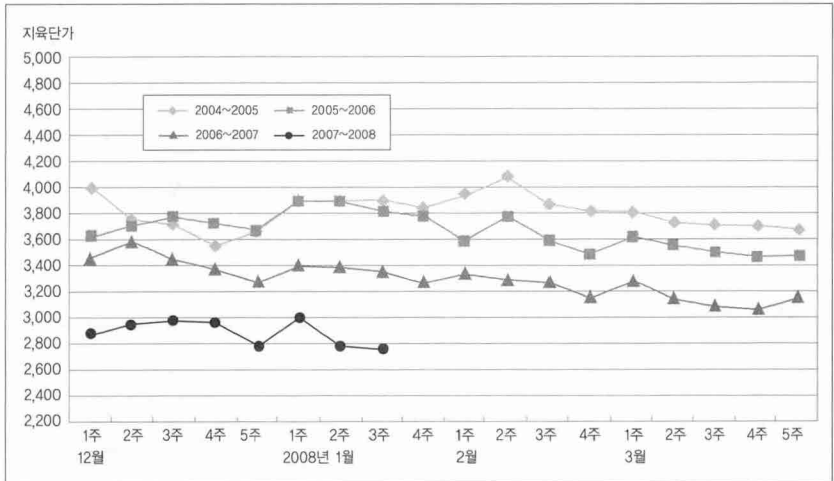
최근 뉴스에 따르면 농림부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뼈가 붙은 쇠고기도 수입하여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양돈 농민에게는 돼지고기 수입으로 과잉 공급된 돼지고기였다 미국산 소갈비까지 수입되어 그나마 지켜오던 국내산 삼겹살의 수요 시장인 식당 매출까지도 미국산 소갈비에게 빼앗길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면초가의 형국에 몰려있다.

이와 같이 악화된 양돈 경영 환경이 양돈 농가들이 평생 지켜오던 양돈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과거에도 돈가 하락 기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돈가는 폭락하고 생산성을 떨어지고 수입시장은 FTA로 활짝 열리게 되어 매우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양돈농가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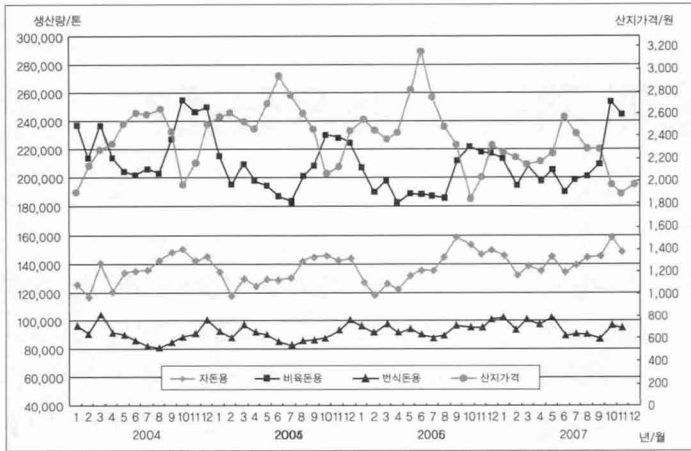
2007년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육류 공급 시장 공급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도 국내산 돼지 도축두수는 13,592,939두로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였고 소 도축두수는 682,714두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7년도 돼지고기 수입량은 248,31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되었고 쇠고기 수입량 또한 203,12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되어 국내산 증가량보다 수입산 증가량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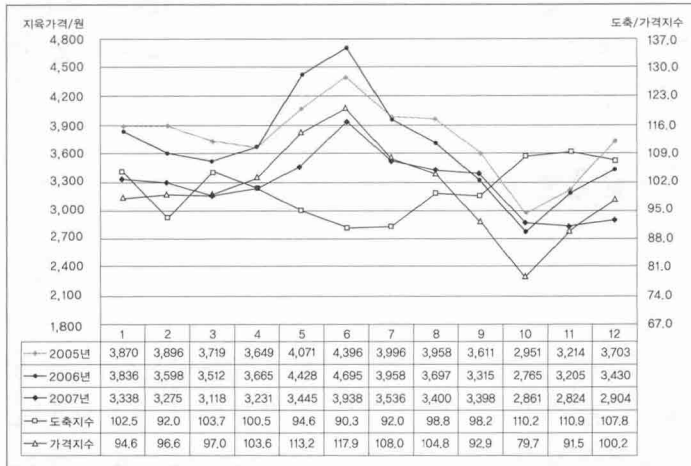
결국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증가로 하락한 축산물 가격과 이에 따른 국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18일 서울 도매시장에서 지육단가는 2,500원 대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1월 현재 많은 양돈 농장들이 너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돼지 사육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미 많은 농장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과연 언제쯤에나 돼지 가격은 오를 수 있을까? 현재 집계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금년 4월은 되어야 돼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악착 같이 버티어 살아 남아야 하는 것이 지상 과제이다.

4월 이후에는 국내산 돼지 출하두수의 감소와 소비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돈가 인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FTA 비준과 미국산 쇠갈비 수입 허용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공급 과잉과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과 소비 부진들이 겹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돼지 가격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8년 2월 돈육 시장의 동향은 설날 특수에 따른 돼지갈비 소비증가로 전국 주요 도매 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1월과 비슷한 2,75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내 양축 농민의 고통이 심화된 해였다.

2008년도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 시장 또한 2007년도 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광우병 발병 위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 지지 않고 미국산 쇠갈비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의 연령 제한 해제 요구까지 모두 들어주게 되어 국내 축산물 시장의 모든 보호막이 해제되는 무방비 상태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산 쇠갈비 수입이 이루어지고 일본 수출이 중단되었던 2003년도 국내 돼지가격은 지육단가 2,398원까지 추락한 최악의 시절을 다시 떠올리도록 만든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동시에 20만 톤을 넘어서며 소와 돼지고기 수입량 합계가 사상 최고로 45만 톤을 넘어서 버렸다.

2008년도 1월의 육류시장의 공급 과잉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부진 등이 겹치며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1월